

WEF Weekly Stories

2025년 5월 13일, WEF 4차 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 보기](#)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Forum Stories 발간일자: '25년 5월 9일)

1. 미래 일자리를 위한 기술과 교육



AI로 인한 혜택은 누구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까요? AI 전환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사회 전반에 많은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AI 중심 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직업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도입이 미래 일자리의 기준과 방향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성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육과 역량 개발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데코(Adecco)의 '크리스토프 카투아르(Christophe Catoir)'는 "보호해야 할 것은 직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업은 바뀌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 근로자 역량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필요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을 최우선시 하는 접근법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기업을 선도적인 위치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새로운 핵심 역량 3 가지: 탄소 지능(carbon intelligence), 가상 지능(virtual intelli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세 가지 역량이 노동력 및 직업 시장에서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드(Localized)의 '로닛 아브니(Ronit Avni)'가 노동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세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기업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진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력 부족이 노동 환경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가장 수요가 높은 직무는 무엇인지, 차세대 일자리가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술은 노동시장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과 캡제미니(Capgemini)가 공동으로 발간한 '미래의 일자리에 맞는 인재

연결(Matching Talent to the Jobs of Tomorrow)' 보고서에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스마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 구축,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직장 안팎에서 역량이 발휘되고 활용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학습 빈곤은 전 세계 노동시장에 연쇄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 격차는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며 근로자들은 점점 더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전 세계 학습 빈곤과 관련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 **인도네시아는 직업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재설계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전략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하루 일과를 다시 설계하는 것은 미래의 일터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튼 스쿨(Wharton)의 '애덤 그랜트(Adam Grant)' 교수는 다가올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접근법, 민첩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More

2.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플라스틱 국제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9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산하의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Global Plastic Action Partnership, GPAP)은 2018년부터 각국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 감축 목표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참고: [2024 연례 보고서](#)). GPAP는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25개국이 참여하여 순환 경제 전환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운업은 글로벌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2050년까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 생산 확대, 지속 가능한 운송 개발,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체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는 **각국과 산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에 앞서 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 **AI는 도시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측정, 예측, 대응 방식을 최적화해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고, 깨끗하며, 공정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AI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국의 오염 대응 사례:

- 호주는 10년 만에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를 39% 가량 줄였습니다. 호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80%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쓰레기통 확충, 불법 투기 신고 핫라인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베이징은 ‘공기가 깨끗한 날’(good air days) 일수를 2013년 13일에서 2023년 300일로 늘렸습니다. 베이징은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엄격한 배출 규제 도입,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퇴출 등을 추진하며 공기 정화 분야에서 **다른 도시들을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More

3. 에디터가 선택한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콘텐츠

- **청정 에너지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력망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OECD의 '벤자민 데니스(Benjamin Denis)'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 **지역 단위의 혁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기후 스마트 마을(Climate-Smart Villages)**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지역 단위 해결책이 전 세계 단위로 확장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오늘날 발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데이터와 심리학을 통해 21세기의 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AM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 예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 **도시를 물 혁신 허브로 만들기:** 발렌시아와 싱가포르는 대담한 민관 협력, 스마트 기술 도입,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도시가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해양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해양 경제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위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해양 부문 책임자인 '알프레도 기론\(Alfredo Giron\)'](#)은 지속 가능한 해양 해법에 투자 자본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면 해양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More



Forum Stories newsletter

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

Subscribe today →